

“한전배구단 유치 위해 뛰겠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단계적 이전 추진
4월 수원과 연고지 만료... 실무 협의 재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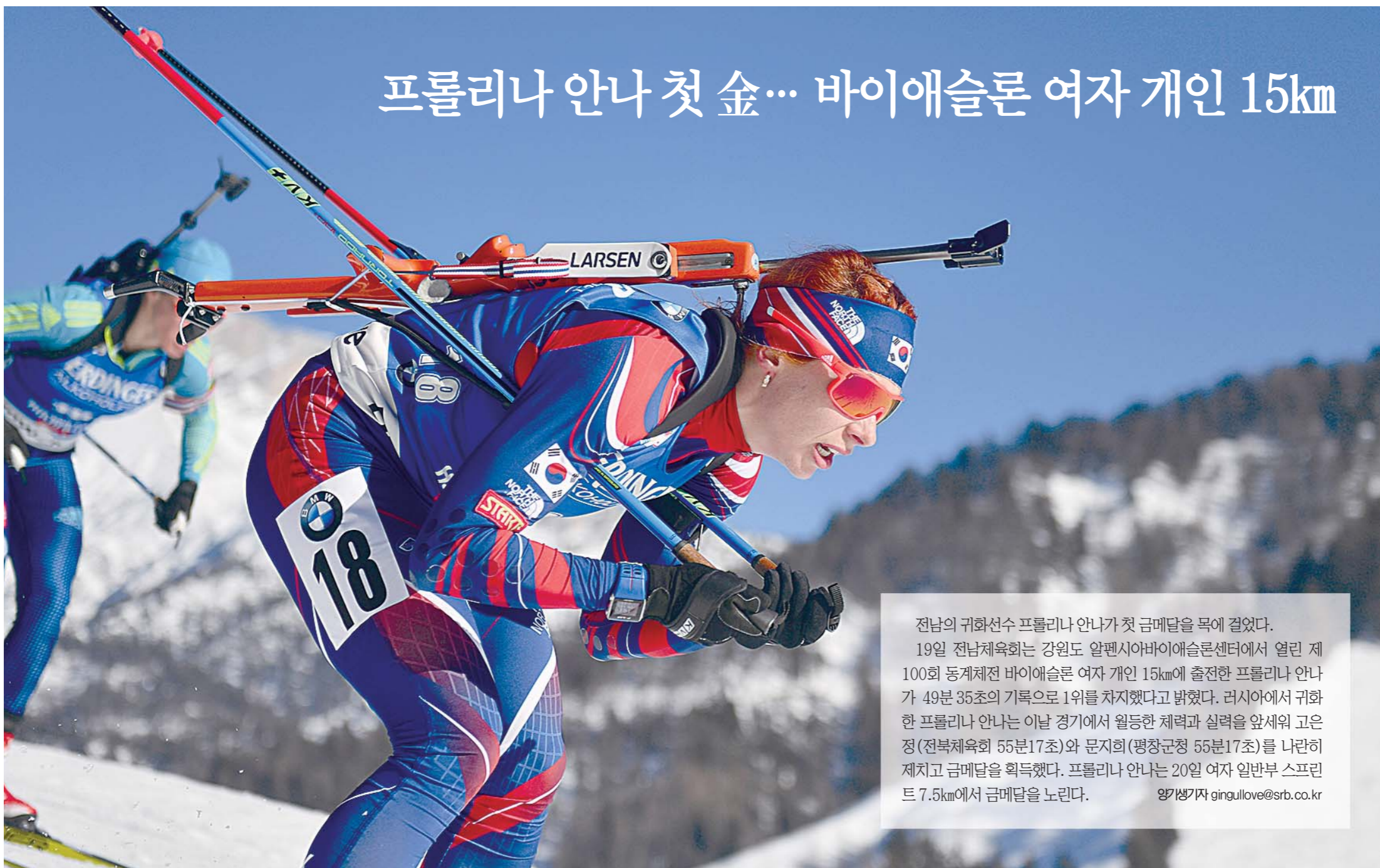
“겨울철 동계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배구 경기를 광주에서 볼 수 있도록 한국전력 배구단 유치 활동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은 19일 광주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전배구단이 경기도 수원시와 체결했던 연고지 계약 만료시점을 두 달 여 앞두고 한전 배구단 광주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문화적 기대효과, 도시홍보, 엘리트배구 활성화 등 한국전력 프로배구단(KEPCO VIXTORM)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전 회장은 “20여 년 전 광주신세계 볼트 여자농구단과 나산 플라망스 남자농구단이 이후 광주에 실내 프로스포츠가 없어지고 즐길거리가 전혀 없다”며 “한전 배구단이 유치되면 광주와 전남·북, 인근 경남까지 배구 동호인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한국전력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당시 소속 프로팀인 배구와 럭비의 연고지를 광주전남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럭비가 전남으로 이전된 반면 배구는 그대로다”면서 “한전은 이전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달 안에 실무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과 광주시의 배구단 이전은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전과 광주시는 연고지 이전에 대해 3차례 이상 실무급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배구단 광주 유치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따라 양 측은 한전 배구단 이전을 통합 이전이 아닌 연고권을 광주로 가져오는 단계적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 회장은 한전 배구단 유치에 있어서 구단과 지역민의 바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자 프로배구단은 7개 구단이 있는

데 팀별로 36개임을 진행한다. 전 회장은 “홈 경기 18개임을 광주에서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배구단이 이전하게 되면 전용경기장, 선수단 훈련장, 숙소 등에 대해 신규 투자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 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부담감을 엄청 크게 느끼고 있었다며 단계적 이전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회장이 한전 배구단 유치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한전 측이 약속한 이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지역에 탄탄한 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도 명분이 되고 있다.
현재 초중고대학팀에 이어 실업팀까지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은 서울을 제외하고 광주가 유일하며 생활체육 동호회 240개, 교직원 배구팀 80개가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유일의 좌식배구(장애인 배구)팀이 구성돼 있다.
전 회장은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전과 지역민의 동질감 확보를 위해 배구단의 광주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고지 이전이 힘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 실무진이 배구계에서 영향력이 큰 신치용 인천전수총장을 만나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기생기자 gingulove@srb.co.kr



프롤리나 안나 첫 금...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5km

전남의 귀화선수 프롤리나 안나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일 전남체육회는 강원도 알펜시아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제 100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5km에 출전한 프롤리나 안나가 49분 35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프롤리나 안나는 이날 경기에서 월등한 체력과 실력을 앞세워 고은정(전북체육회 55분17초)과 문지희(명창군청 55분17초)를 나란히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프롤리나 안나는 20일 여자 일반부 스피리트 7.5km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양기생기자 gingulove@srb.co.kr

하키 남자 국가대표 후보팀 광주 조선대 하키장서 맹훈련

2021년 주니어 월드컵 티켓 도전

하키 남자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대표팀 전지훈련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선대학교 하키장에서 하키 남자 국가대표 후보팀을 비롯한 전국 하키 강호팀들이 합동 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28일까지 광주에서 훈련할 이들은 21세 이하 주니어 대표로서 2021년에 열릴 하키 주니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내기 위해 다른 지역 하키 팀들과 연습 경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가대표 후보팀 감독은 김종이(46) 조선대 감독이, 코치는 유문기(45) 대한하키협회 코치가 맡았고, 조선대 하키팀 소속인 고성훈(주장)과 박준석, 김현우(이상 2년) 등을 포함해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주니어 월드컵 본선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내년엔 열릴 아시아 주니어 월드컵(예선전)에 출전해 아시아팀에 총 3장이 부여되는 본선행 티켓을 따내야만 한다. 이들이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인도, 파키스탄, 일본 등 강국을 꺾어야 한다.
후보팀은 이들 강국들과의 빅 매치를 대비하고자 체력과 팀워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군체육부대, 순천향대 등 다른 지역의 하키 팀들과 매일 연습 경기를 치르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종이 감독은 “모교에서의 합동 훈련을 통해 선수들 간 손발을 맞추며 팀워크와 경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겠다”며 “내년 예선전에 출전해 강호들을 물리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겠다”고 다짐했다.
양기생기자 gingulove@srb.co.kr

해즐베이커 등번호 '5'의 비밀은?

타격·파워·스피드·포구·송구 갖춘
“파이브 툴 플레이어 되겠다” 다짐



여기는 오키나와
한경국 기자, 스프링캠프 현장에 가다

“등번호가 5번이구요? 그럼 ‘파이브 툴 플레이어’가 팔래요.”
올 시즌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제레미 해즐베이커(32)의 다짐이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몸을 만들고 있는 해즐베이커는 완벽한 선수의 상징인 ‘파이브 툴 플레이어(Five-tool player)’가 되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
‘파이브 툴 플레이어’는 타격, 파워, 스피드, 포구, 송구 등 야구에 필요한 재능 5가

지를 갖춘 선수를 의미한다.
사실 해즐베이커의 원래 목표는 파이브 툴 플레이어가 아니었다.
그가 이같은 목표를 정하게 된 것은 등번호 때문이다.
미국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41번이었던 해즐베이커는 KIA로 이적하면서 5번으로 바꿨다. KIA 한승혁이 41번을 선점한 상태라 번호를 불가피하게 바꾸게 된 것이다.
그의 등번호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해즐베이커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KIA 홍보 관계자가 “이렇게 된 거 ‘파이브 툴 플레이어’를 목표로 하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해즐베이커는 무릎을

‘탁’ 치며 “좋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즐베이커는 공·수·주가 뛰어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선수다.
2009년 보스턴 레드삭스로부터 4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그는 바리케이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2016년에 처음 팔꿈치 타율 0.235 12홈런 28타점을 올렸다. 2017년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타율 0.346 2홈런 10타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마이네리 그에만 머물렀다.
해즐베이커의 마이네리그 통산 성적은 타율 0.260, 99홈런, 431타점, 523득점이다. 도루 267개를 성공할 정도로 빠른 발을 자랑한다. 트리플A 통산 성적은 타율 0.259 43홈런 186타점 199득점 81도루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이범호, 햄스트링 통증에 귀국

호랑이 군단에 부상경계령이 떨어졌다. 일본 오키나와 일대에서 스프링캠프로 몸을 만들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에 부상자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지훈련이 3주 가까이 진행되자 자연스럽게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범호가 부상을 입었다. 수비

훈련을 하던 도중 왼쪽 허벅지 뒤쪽에 통증을 느낀 이범호는 검진을 해본 결과 햄스트링 부상이 나왔다. 20일 귀국해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범호에 앞서 이탈한 선수는 김세현과 윤석민이다. 김세현은 오키나와 캠프에 도착한지 사흘

만에 짐을 싸다.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낀 김세현은 피칭 등으로 몸을 풀어봤지만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김세현에 이어 두 번째로 스프링캠프에서 하차한 선수는 윤석민이다.
윤석민은 예전부터 발목을 잡았던 어깨와 오른다리 내전근(허벅지 안쪽) 통증으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판단, 귀국했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

KIA, 타이거즈 C.C. 모집

KIA타이거즈가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타이거즈 C.C.(콘텐츠 크리에이터·contents creator)’를 모집한다.
타이거즈 C.C.는 KIA타이거즈 선수단 및 구단, 팬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자격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거주 대학생이면 된다. 영상(사진) 분야 2명을 선발하며, 4월부터 10월 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KIA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참신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획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28일까지 구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자유 주제 영상 1건 이상)와 함께 이메일(kiatigerspr@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타이거즈 C.C.에게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곳곳을 출입할 수 있는 AD 카드와 소정의 활동비, 구단 의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경국기자 hkk42@srb.co.kr